

다윗과 므비보셋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7/25 월요일

아침의 누림**삼하 9:3, 7**

3 왕이 물었다. “사울 온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이가 있는가?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자 하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말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7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분명히 그대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그대에게 친절을 베풀겠소. 내가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의 온 땅을 그대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리고 그대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하시오.”

삼하 9:8-9, 11

8 므비보셋이 경의를 표하며 말하였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저를 돌아보십니까?”

9 왕이 사울의 시중을 들던 시바를 불러 말하였다. “사울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것을 자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겠네.

11 시바가 왕에게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왕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대로 이 종이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하였다.

“므비보셋은 왕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나의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해야 하네.”

엡 2:4-7

4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5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6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7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엡 3:8

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사무엘기하 9 장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풀는 것에 관한 기록이다.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 사울 집안에 남아 있는 어떤 후손이 있다면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부름을 받고서 다윗에게 왔다. 다윗은 그에게 “사울 온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이가 있는가?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자 하네.”(삼하 9:3 상)라고 물었다. 그 종은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아직 살아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전다고 말하였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친절을 베풀겠다고 말했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온 땅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고 그는 항상 다윗의 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7 절).(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2 장, 241-24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므비보셋의 할아버지인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다. 사울은 여러 차례 다윗을 박해했고 죽이려고 했다. 사울은 다윗의 큰 원수였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므비보셋의 유모는 므비보셋을 데리고 급히 도망갔다. 그 유모는 므비보셋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죽었으니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다윗이 복수하려고 와서 므비보셋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모가 너무 빨리 뛰는 바람에 아이가 떨어져 불구가 되었다. 잠시 생각해 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상태가 아닌가?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오해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에 대해 악한 마음을 품으시리라고 생각한다. ... 므비보셋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나의 할아버지는 다윗의 원수였으니까 다윗은 분명 나를 미워할 것이다. 나는 다윗과 좋은 관계가 없었으니 그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다. 므비보셋은 은혜를 받을 근거가 없었지만 은혜를 받았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사실이 적용된다.

오늘날 하나님도 “아담의 후손 중에 아직 살아남은 이가 있는가?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라고 묻고 계신다.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므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날 사람들은 한 가지 크게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그들에게로 돌이키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선한 행실을 얼마나 많이 가져야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며 기뻐하실지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므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위치가 조금도 없었다. 다윗은 므비보셋을 알지 못했다. 다윗은 므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을 알았을 뿐이다.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므비보셋이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 다윗이 호의를 베풀는 것이 아니다. ... 므비보셋이 친절을 입은 것은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먼저 좋은 행실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얻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요나단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나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해야 한다고 말하는 절이 없다. 성경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화목하시다! ...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워치만 니 전집, 18 권, 주제별 진리 연구 기록(2), 58-6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2 장

7/26 화요일

아침의 누림

롬 2:4

4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을 그대가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그토록 인자하시고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고후 6:4, 6

4 다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추천합니다. 곧 우리는 많은 인내를 하고 환난과 궁핍과 곤경에 처하고

6 또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거룩한 영과 거짓 없는 사랑과

삼하 9:4-6

4 왕이 그에게 “그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5 다윗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데려오게 하였다.

6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경의를 표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므비보셋이여.”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왕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롬 3:11

11 깨닫는 이도 없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도 없다.

겔 34:11, 15-16a

11 주 여호와와가 이렇게 말한다. 나 곧 바로 내가 직접 내 양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찾아다니겠다.

15 내가 직접 내 양 떼를 목양하고 그들을 높게 하겠다. 주 여호와와의 선포이다.

16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흠어진 양을 다시 데려오며 상한 양을 싸매 주고 병든 양을 강하게 하겠으나, 살찌고 힘센 양은 없애 버리겠다(나는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겠다).

벤전 2:25

25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말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그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로드발에 ... 있습니다.’”(삼하 9:3-4) ‘로드발’은 ‘풀밭이나 목초지가 없는 장소’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이다. 오늘날 세상은 ‘로드발’이다. 세상은 영원히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 줄 수 없고, 사람의 목마름을 그치게 할 수 없다. 로드발은 여러분의 마음을 결코 충족할 수 없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 아름답고 평화로운 꿈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세상의 모든 약속들이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수표’임을 알게 될 것이다. ... 세상은 다만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할 뿐이다. 세상은 거둬서 여러분에게 꿈을 불어넣어 주지만, 여러분이 바라던 모든 것은 다만 신기루일 뿐이며 풀밭이 없는 마른 땅이다. ... 하나님 밖의 생활은 영원히 만족을 줄 수 없다. 다윗에게서 도망친 므비보셋은 풀밭이 없는 곳, 곧 생명 공급이 전혀 없는 곳에 살고 있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죄인 또한 풀밭이 없는 곳에 살고 있다.(워치만 니 전집, 18 권, 주제별 진리 연구 기록(2), 6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다윗은 므비보셋이 풀밭이 없는 곳에 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다윗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데려오게 하였다.”(삼하 9:5) 로마서 3 장 11 절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도 없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 19 장 10 절은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같이 악하고 타락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지요.”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영영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 므비보셋은 다윗을 찾지 않았지만,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 므비보셋을 데려오게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으시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므비보셋은 그의 할아버지가 다윗의 원수였으므로 감히 왕을 만나러 가지 못했다. 게다가

그는 두 다리를 절었으므로 그에게는 왕을 만나러 갈 능력이 없었다. 우리는 ‘나의 행위가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그분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구할 것이다. 그럴 때 아마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찾으신다고 말한다. 로마서 10 장 6 절과 7 절에서 말하는 것은 … 누구도 능히 하늘에 올라가 주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달라고 간구할 수 없고, 또한 누구도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다음 절들에서는 “ ‘그 말씀이 그대에게 가까이, 곧 그대의 입에 있으며 또 그대의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롬 10:8, 10)라고 말했다. …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경의를 표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므비보셋이여.’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왕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삼하 9:6) 오! 여기에 매우 듣기 좋은 음악이 있다! “므비보셋이여.” 다윗은 므비보셋을 만났을 때, “므비보셋이여, 그대가 왔소?”,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여.”,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여.”, 또는 “그대는 누구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윗이 “므비보셋이여.”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다윗은 어떤 음성으로 그 말을 했겠는가? 오! 이 말속에는 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므비보셋이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원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해 준다.(워치만 니 전집, 18 권, 주제별 진리 연구 기록(2), 61-6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18 권, 주제별 진리 연구 기록(2), 32 기, 다윗과 므비보셋

7/27 수요일

아침의 누림

삼상 20:14-15

14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 나에게 여호와와 자애를 베풀어 내가 죽지 않게 해 주기를 바라네.

15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지면에서 끊어 버리실 때에도 나의 집에 베푸는 자애를 끊지 말아 주게.”

골 3:12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눅 15:20-24

20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21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22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걸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23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24 왜냐하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

시 103:8-13

8 여호와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애가 풍성하신 분.

9 항상 책망하지는 않으시며 영원히 진노를 품지도 않으신다.

10 우리 죄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 죄악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다.

11 하늘이 땅 위로 높이 있는 것같이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자애가 크시기 때문이다.

12 동이 서에서 멀리 떨어져 있듯 그분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셨다.

13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와는 자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막달라 마리아가 …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나는 동산지기가 아닙니다.”, “내가 시체를 옮겨 가지 않았습니까.”, “여자인 그대가 어떻게 그 시체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다만 “마리아여!”라고 하셨다. 마리아는 그 친숙한 음성을 듣고 즉시 “라보니!”라고 말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의 이름만 부를 때에는 그 말속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다. 다윗이 자신의 원수의 손자를 보고 “므비보셋이여.”라고 부른 것은 다윗에게 복수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음을 말해 줄 뿐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동정으로 가득했음을 말해 준다.(워치만 니 전집, 18 권, 주제별 진리연구 기록(2), 63-6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안타깝게도 므비보셋은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그는 다윗을 만나러 갈 때,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을까 하고 마음이 두근두근 했을 것이다. 그는 다윗을 만나 자신을 “므비보셋이여.”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다윗에게 그에 대한 악의(惡意)가 없고 동정이 있음을 알아야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너무 컸으므로 “왕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삼하 9:6)라고

대답했다. 그는 ‘과거에 왕의 손자였던 내가 자신을 낮추고 노예가 된다면, 아마 다윗의 환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스스로 노예의 일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므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분명히 그대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그대에게 친절을 베풀겠소. 내가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의 온 땅을 그대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리고 그대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하시오.” (삼하 9:7) ...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있다. ...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알게 된다. 십자가의 형벌은 마땅히 여러분이 받아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을 형벌을 주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 탕자는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했다(눅 15:18-19). 그러나 아직도 집에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달려가서’. 아! 아버지의 이 마음은 죄의 거리를 단축시킨다. ... 그의 아버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다만 입을 맞출 때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그 아들은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다만 마음으로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라. 십자가 앞에 나아오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의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왕이 사울의 시중을 들던 시바를 불러 말하였다. ‘사울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것을 자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겠네. 자네와 자네의 아들들과 종들은 므비보셋을 위하여 그 땅을 경작하게. 그리고 자네 주인의 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소산을 가져오게. 자네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나의 상에서 음식을 먹을 걸세.’ ... ‘므비보셋은 왕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나의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해야 하네.’”(삼하 9:9-11)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가! 여기에는 조건이나 명령이 없고 다만 약속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없고 다만 “내가 네게 주겠다.”라는 말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은혜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워치만 니 전집, 18 권, 주제별 진리 연구 기록(2), 64, 66-6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에서 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축복과 위치, 12 장

7/28 목요일

아침의 누림

삼하 9:13

13 므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었다.

히 12:2

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히 2:9

9 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롬 8:1-4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딤후 1:13-15

13 전에 나는 모독하는 사람이요, 박해하는 사람이요, 모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동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4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셨습니다.
15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믿을 수 있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느 8:10

10 그때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포도주를 마시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이에게 몹을 보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울왕의 손자(삼하 4:4)인 므비보셋과 같다. 므비보셋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걸을 수 없었다. 다윗왕은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고, 그에게 그의 모든 유업을 돌려주었으며, 그를 초대하여 자신과 한 상에 앉아 마음껏 먹게 하였다(9:1-13). 므비보셋은 다윗에게서 은혜를 입은 후에 오직 다윗의 상에 있는 풍성만을 바라보았다. 그는 상 아래에 있는 자신의 저는 다리를 보지 않았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절뚝거리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낙심하게 된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우리의 ‘저는 다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 앉아 온갖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갖고 계시는 그분을 누려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 있는 풍성만을 바라보며 그 풍성을 누려야 한다.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5년, 2권, 생명나무, 14장, 294쪽)

오늘의 읽을 말씀

므비보셋이 다윗의 사랑을 모를 때에도 다윗은 이미 그를 사랑했다. 그가 다윗의 사랑을 알 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와 같이 대하신다. ... 하나님은 현재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지만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므비보셋을 대하듯이 저를 대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의 저의 행위는 좋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의

생활은 오르락 내리락하며 좋았다가 나빴다가 합니까?”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사무엘기하 9장 13절을 읽기로 하자. “므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같이, 이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은혜로 말미암는다. 많은 사람이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그런 일은 없다. 우리는 구원받는 조건과 구원을 유지하는 조건이 같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끝까지 유지된다. 비록 므비보셋이 자주 왕과 함께 정찬을 먹었지만, 그의 두 다리는 여전히 절었다. 한쪽 다리만 전다면 다른 쪽 다리로 뛸 수 있겠지만, 두 다리를 모두 절었기 때문에 걷는 것이 불편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흉했다. 우리는 왕의 상에서 정찬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두 다리 모두 절고 있다. 왕은 결코 다리 저는 이를 첫날만 상에 앉게 하고, 며칠이 지난 후 그가 두 다리를 모두 전다고 해서 쫓아내지 않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두 다리는 절뚝거리지만 ‘상 아래’ 있다. 우리는 다만 상 위에서 먹으면 된다. 우리는 왜 상 아래 있는 두 다리를 상 위에 놓으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만 상 위를 보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차려 놓으신 것은 놀랍고도 풍성하고도 달콤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먹는 것이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을 바라보라. 우리가 돌아서서 자신을 볼 때마다 평안은 사라진다. 사람의 눈은 밖을 보기 위한 것이지만 안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니다. 우리의 눈이 계속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돌아서서 자신을 본다면 므비보셋과 같이 여전히 두 다리를 절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을 얻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사신다. 그런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된다. 그러나 아담에게서 온 자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성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e)처럼 거룩한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아는가? 그는 “이 세상의 죄의 씨들 대부분이 내 자아 안에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이 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두 다리는 여전히 절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차려 놓으신 풍성과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워치만 니 전집, 18권, 주제별 진리 연구 기록(2), 68-70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하나님, 8, 10-11장

7/29 금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3:4-5

4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와 사랑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5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낚은 씨들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요일 4:9-10

9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10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 1:14, 16-17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롬 9:15-16, 18, 23

1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16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집스러워지게 하실 사람을 고집스러워지게 하십니다.

23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신약은 인자함이라는 신성한 속성을 계시한다. ... 하나님의 인자함과 엄격함을 말하는 로마서 11 장 22 절은 하나님의 인자함이라는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에베소서 2 장 7 절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시며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인자함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나오는 자상한 미덕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 우리가 구원받고 다른 이들과 다르게 된 것은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신약의 결론, 하나님, 11 장, 13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2 장 4 절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며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을 그대가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그토록 인자하시고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멸시하는 것입니까?”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여러분은 한 면으로는 사람을 유죄판결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관용과 오래 참음으로 가득하심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관용하시며, 관용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자하신 것은 여러분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이 아직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은 것은 그분께서 인자하시므로 여러분에게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며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로마서에서 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4 장, 77-78 쪽)

디도서 3 장 4 절과 5 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와 사랑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디도서 2 장 11 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하고, 3 장 7 절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3 장 5 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은혜보다 더 멀리까지 미친다. 우리의 가련한 상태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는 넓은 간격이 생겼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 간격에 다리를 놓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으로 이끌었다.

디도서 3 장 4 절과 5 절에서 바울은 은혜에 대해 말하지 않고, 인자와 사랑과 긍휼에 관해 말한다. 사랑은 은혜의 근원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이 아들을 통해 표현될 때 이 사랑은 은혜가 된다. 이 때문에 고린도후서 13 장 14 절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 장 16 절과 17 절에서 우리는 은혜를 보지만, 요한일서에서 우리는 은혜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진다.

그러면 긍휼과 인자는 무엇인가? 우리는 긍휼이 언제나 은혜보다 더 멀리까지 미친다는 것을 지적했다. 우리가 합당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가련한 상태에 있었고, 오늘도 여전히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은 심지어 가련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인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의 하나님의 태도이다.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도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나는 가치 있는 선물을 어떤 형제에게 줄 수 있지만, 무성의하고 무뚝뚝하게 줄 수도 있고 혹은 인자한 태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줄 수도 있다.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인자가 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은혜를 얻는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인자를 베푸셨으며, 이것에 의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디도서 라이프 스타디, 5 장, 41-4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도서 라이프 스타디, 4-5 장;
로마서에서 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4 장;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52 장

7/30 토요일

아침의 누림

엡 2:7-8

7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8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엡 4:32

32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골 3:1-4, 12-15

1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2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3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13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연결하는 띠입니다.

15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에베소서 2 장 7 절은 ...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풍성한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보겠다. 타락하여 황폐해진 한 형제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 나는 본래 그를 썩 좋아하지 않았고, 그가 그의 성격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갈 것임을 오래전부터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상태를 보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고, 그를 책망하거나 유죄판결 하지 않고 도리어 인자함을 지니고 관용과 은혜로 대했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베푼 은혜이다. 나는 인자함으로 그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에베소서에서 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축복과 위치, 12 장, 18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거스른 사람들이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으며, 공중 권세의 통치자인 사탄을 따라 살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인자가 풍성하시다. 하나님께서 엄격하신 하나님,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인자하시다. 곧 우리에게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는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또한 그분의 긍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인자하심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의 풍성을 우리에게 베풀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인자를 본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그분의 은혜의 풍성을 보이시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은혜의 풍성은 그분께서 베푸신 인자하심 안에서 보이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본래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긍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심지어 그분은 어느 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얻고 누리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분은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에베소서에서 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축복과 위치, 12 장, 189-190 쪽)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 우주에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은 모든 한계를 초월한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자신의 풍성이다. 이것은 영원히 공개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 넘치는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다. 이 은혜는 생명과 빛과 능력과 같은 많은 방면들과 미덕들과 속성들을 갖는다. 생명과 빛과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를 끌어낼 힘이 없다면 어떻게 그를 건져 낼 수 있겠는가? 더욱이 우리에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를 건져 내기 위한 번거로움을 감수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지혜가 필요했다. 사랑과 지혜는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에 속한 것들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가올 시대들,

곧 천년왕국 시대와 영원 미래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은혜를 온 우주에 공개적으로 보이실 것이다.

우리의 생명 공급과 기쁨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할 것이다(비교 엡 4:32). 우리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남을 용서하는 것과 남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모두 필요하다. 우리는 쉽게 다른 이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쉽게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같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는 이 단락의 권면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우리 일상생활의 본으로 제시한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분의 생명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같이 용서할 수 있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21 장, 206, 208 쪽, 48 장, 45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21, 48 장

2022. 7. 25 ~ 2022. 7. 29

단체로 읽을 말씀: “생명 나무”, 4-5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2 장
디도서 라이프 스타디, 4-5 장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21, 48 장
장신약의 결론, 8, 10-11 장

7/31 주일

아침의 누림

빌 2:1-11

-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영의 어떤 교통이나, 어떤 부드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 2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 3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 4 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 5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 6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 7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 8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 10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찬송

26. 높고 깊은 아버지의 긍휼 (중:22)

- 1 아버지의 크고 깊은 긍휼 찬양하겠네
우리 약함 실패 위에 항상 긍휼 넘치네
오 확실한 주의 긍휼 우리에게 관 쓰워--
그의 긍휼 확실해.
- 2 자신 낮춘 변함없는 긍휼 정말 놀라워
죄인에게 임한 긍휼 항상 계속되겠네
그 무엇도 이 긍휼을 잃게 하지 못하리--
그의 긍휼 영원해.
- 3 풍성하고 풍족하네 아버지의 큰 긍휼
구속 인해 돌보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무엇으로 이 큰 사랑 받게 할 수 있으리--
그의 긍휼 풍성해.
- 4 부드럽고 달콤하네 사랑스런 이 긍휼
주의 은혜 인내로써 우리 필요 채우네
귀하고도 귀한 긍휼 우리에게 완전해--
그의 긍휼 완전해.
- 5 긍휼 누려 영원토록 낡지 않고 새롭네
적셔지는 이슬처럼 매일 아침 임하네
이 얼마나 달콤한가 주의 긍휼 찬양해--
그의 긍휼 찬양해.
- 6 주의 긍휼 확실하니 찬양 그칠 수 없어
주 은혜와 돌보심이 영원토록 지키네
주의 긍휼 우리들을 부끄럽지 않게 해--
그의 긍휼 확실해.